

# 식품클러스터 2단계 속도낸다

### 익산시, 행정절차 본격화... 다음달까지 사업 시행자 결정

국가첨단산업 지정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다.

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시는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사업 대상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

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단계 사업 추진사항과 진행 일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정부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2단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시행자 선정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2026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기



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천 855억원에 달한다.

기존 1단계가 식품 제조 중심이라면 2단계는 미래형 산단으로서 견학과 전시, 체험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산업 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전통 식품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과정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유망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스탬프 투어 · 익산여행 어때?’

### 스마트 관광지도 통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작

익산시가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스탬프 투어’를 재개한다.

시는 인기 만점 프로그램인 스탬프 투어에 각종 이벤트까지 더해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여행도 즐기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익산여행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봄을 맞아 익산을 찾는 여행객에게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요 관광지 28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스탬프를 획득해 완주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벤트는 익산시민을 제외한 타 지역 관광객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익산시 스마트 관광지도( <https://issan.dadara.kr> )

주소로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4개 이상 획득하면 된다.

스탬프를 획득하면 완주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캡처 후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완주 인증서 제출 시 매월 선착순 50명에게 익산 탐마루 고구마가 선물로 증정된다. 선착순 50명 외에는 소정의 관광 기념품이 증정된다.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교도소 세트장 근대역사관, 내비위성당, 보석 박물관 등 28곳이다.

시 관계자는 “여행도 즐기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익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 지도 박차

군산시가 구)역전사거리 사백 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9일 구)역전사거리에서 열리는 사백시장의 농산물 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 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학교급식 품격 높인다... 식재료 만족도 ‘최고’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신선한 재료로 보다 나은 급식 서비스 제공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앞으로도 안전성을 강화한 신선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 품질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최근 지역 학교와 사립유치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에 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참여한 전체 79개 학교 가운데 94%가 공급된 식재료 품질에 대

해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 89%가 불편 사항 처리 94%가 배송 처리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수발주 시스템 간소화, 식재료 가격’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전 품목을 공급받고 있는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교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식재료 가격, 제품의 다양화, 수발주 시스템’ 순이었다.

긍정적인 점으로는 ‘기존 입찰에 따

른 유찰 걱정 없음’, ‘전 품목 일괄배송’ 등을 꼽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영양교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달 2일부터 84개 학교와 22개 사립유치원 3만 1천 555명 학생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으로 급식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식재료 공급·품질에 만족도를 더욱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 공개 매각

군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를 공개 매각한다.

시는 29일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해 불용을 결정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개매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 기종은 굴삭기,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총 31종 35대이며 공고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일부 기종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장면 운회길 32)를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기간 4월 5일에서 6일 양일에 걸쳐 본인 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농기계임대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굴삭기 매각은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3톤 미만) 또는 산업안전관리공판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이기는진단검사의학과의원,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군산시에 제2호 고향사랑기부금 기탁했다.

시는 29일 전주시 금암동 이기는진단검사의학과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기는진단검사의학과의원은 코로나 19 검체 임상 검사기관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군산시와 선별진료소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기는진단검사의학과의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군산시와 함께 이겨내며 군산에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군산시의 발전을 소망하며,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뜻을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의 시

나 방역에 큰 도움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군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자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여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제도로 참여시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lovegyang.go.kr) 홈페이지(온라인)와 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군산시 내홍동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됐다.

군산시는 29일 내홍동 일원에서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공무원,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군산시농정지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조림사업 일환으로 판백나무 묘목 1,200본을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나무심기 행사를 4년 만에 재개됐다. 시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더불어 내 나무

를 갖고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 나무심기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미래 유산인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산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특화 조림 23ha, 큰나무 조림 21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10ha 등 총 62ha의 산림을 조성해 숲으로 살리는 산림 르네상스 창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1시민 1정원 프로젝트 큰 호응

익산시가 1시민 1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테라스 정원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각 가정에 반려식물과 봄꽃을 배부해 실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을 통해 모두 5천여 가구에 반려 식물과 봄꽃 3만여본이 배부됐다.

지난 6일부터 선착순 접수가 시작됐으며 29개 읍면동에서 사업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호응이 컸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일부 지역은 첫 날부터 신청이 마감된 곳도 있었다.

실내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게 계획된 이번 사업은 아쉽게 오네마 엔젤 스킨답서스 등 반려 식물과 봄 꽃 3종류까지 1가정 당 6개의 식물이 주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예쁜 꽃과 색감이 있는 반려 식물은 보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좋아졌다”며 “1시민 1정원 프로젝트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